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정지창



막이 오르면, 한국 1971년 겨울, 청회색의 음울한 하늘을 배경으로 빠에따의 예수상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무대 중앙에 작은 턱자, 턱자 위엔 걸은 표지의 거대한 성서. (...) 기타 소리와 함께 노래가 들린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깁킴한 가난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어원 사람들을/ 무얼 찾아 해매나/ 저 둔,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베림받았네/ 아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 거칠당한 손길들/ 얼어붙은 저 깁킴한 곤욕의 거리/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어디/ 죽음 저편에/ 사철 꾸른 나무숲/ 거기 있을까/ (...)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것은 1973년 원주 카톨릭회관에서 초연된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 머리다. 1970년대의 깁킴한 겨울에 거리로 풀었다.

겨난 거지, 한센인, 창녀들과 이들을 도우려는 수녀, 이들을 등쳐먹는 순경과 사장, 이들을 외면하는 대학생과 신부, 그리고 시멘트의 감옥에 갇혀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 예수. 예수는 금관을 벗어 한센인에게 주지만, 신부와 순경, 사장이 달려들어 도로 예수의 머리에 씌워 버리고 예수는 다시 시멘트로 굳어버린다.

장면은 바뀌어 성탄일을 눈앞에 둔

2009년 12월 하순, 용산참사의 현장인 날 일당 건물 앞 거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의 신부와 수녀, 스님, 문인, 학생, 일반시민, 유가족들이 모여 미사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철거 용역 강제들과 경찰들의 폭력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단식을 계속하다가 쓰러진 문구현 신부의 뒤를 이어 그의 형인 문정현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남일당 성당’이라 불리는 이 거리의 성당엔 금관을 쓴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

금관을 쓴 예수는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라는 한센인의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오직 저희들만을 위하여, 저희들만의 신전에 나를 가두었다. 내가 너 같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그들은 나

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는다. 그들은 나의 제자임을 자랑한다. (...) 가난한 사람들의 굽주립을 외면하고, 박해받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스런 외침에 귀를 막는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의 안락과 부귀와 영예와 권세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터에 그들의 귀에는 나의 말도, 너희들 가난한 백성의 외침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이 나를 가두었다.”

매운 추위 속에 찾아온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케辍보다 김민기가 작곡한 ‘금관의 예수’ 들으며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과 노루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해야겠다. 그리고 나라란 무엇이고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나라란 우리에게 빼앗기만 하는 곳/ 땅에서 허아내고 집을 빼앗는 곳/ 자비를 빼앗아가고 지어미를 짓밟는 곳.”(신경림의 ‘재’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것인가.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김기성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지역경제 또한 수출 감소와 내부부진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광주시 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 및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경제회복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지수도 향상됐으며, 실업률도 전국 최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경제불황의 어두운

용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주시가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지난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등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빛고을론(소액금융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 광주 금융소외자 희망의 빛 ‘빛고을론’

터널에서 끊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특히 한 번의 실수 또는 경제적 좌절로 신용불량자의 명예를 쓰고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받는 금융소외자의 경우가 그렇다.

필자가 직접 면접을 한 김명수(가명)씨는 외병 중에 있는 아내의 병원비에 쓰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결국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건설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매달 20여 만 원을 갚아가면서, 최근에 생계를 유지해갔다. 그 뒤 열심히 살아가던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힘을 다치면서 20여 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환 유예 결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다시 고금리 사채를 사용했고, 김씨는 더욱더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어 지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씨처럼 신용상태가 낮아 제도권 금

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주시가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지난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등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빛고을론(소액금융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도 프로그램 평가 등을 중요내용으로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전교생 7백여 명중에 3백여 명이 설문에 응했다. 방과 후 교실 학생증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학생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학교 내에서 전문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실 참여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프로그램이 학생의 흥미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도에 아쉬움이 크다.

제2장인 교육비로 전문강사와 수업한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참여수준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인구유입요인이 적어 계층간 격차가 넓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아동의 정서함양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와 소통과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단체장과 열린 마음으로 금융소외자들을 생각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 사업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고, 희망의 빛이 되고, 삶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시지부장〉

## 바람직한 선거상 말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을 한해 공명선거의 및 돈선거 근절을 위한 흥보를 위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선거 때는 한번 얻어먹어 봐야 하고 금품·향응과 자신의 표를 맞바꾸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주는 것은 받고 투표는 올바른 사람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농담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 땅에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도 훨씬 지났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고, 정치와 선거 풍토를 제자리 걸

음 속에서 낙후된 채로 남아있게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들이었다. 똑같은 국민들인데 너무나도 다른 국민의 양면성에 의문이 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내년 6월에는 무려 8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국민들을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말로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는 바람직한 선거상, 즉 금품·비방·흑색선전·사조직·연고관계 등 잘못된 선거문화를 과감히 청산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진화된 선거가 말로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권병주·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탈법 빛 독촉 부추기는 채권 추심법 수정해야

일전에 친구가 모 단자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2천만 원을 빌린 후 이걸 제때 갚지 못하자 연리가 몇백 퍼센트씩 올라갔고 지금은 가혹한 빛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소득 서민들이나 체무자들의 권리조차도 보장하기 위해 ‘채권 추심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또는 약간에 빛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반복적 또는 약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법률이 이렇다 보니 이 법률대로라면, 간

협적이거나 주간에 이뤄진 방문이나 전화

빛독촉은 문제삼을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방문 독촉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어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나 급작스런 변호로 인해 돈 갚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채권 추심법의 규정을 다시금 손봐 채무자들이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빛독촉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빛쟁이들이 느닷없이 들어다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총동

##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시설

## 여야 정치력 발휘해 예산안 연내 처리해야

여야의 강경 대치로 예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부터 ‘4대강 예산 사수’ 리는 기조 아래 예산안 자체 심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를 5일째 이어가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사흘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만 합의한 것인 만큼 연내 예산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날치기 통과’ 시도-육탄 저지’라는 불쌍사나운 풍경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에게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확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특히 여당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결코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여기에 2011

## 주택 20만호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광주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 종소기업이 친환경 주택 20만 호를 중국에 수출키로 했다고 한다.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일을 중소기업이 그것도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운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사시킨 것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하남산단 내 단열재 전문 중소기업인 (주)한국스チ로풀은 최근 중국의 진심(金心) 국제투자유한회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세계 최초로 ‘인슈블록’을 이용한 그린 하우스인 ‘제로 하우스’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스チ로풀은 내년 1년 동안 중국에 주택 20만 호를 수출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국스チ로풀의 퀘기는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기술력 향상에만 전념해 온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모 대표이사는 지난 25년 동안 단열재만을 생산하면서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한다. 단열재 합성 블록인 ‘인슈블록’은 벽면재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1m<sup>2</sup> 당 연간 난방용 기름 사용량이 1.5ℓ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를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결합해 중국대륙에 진출한 것이다. 이번 수출로 300억~400억원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3년 내에 2조원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한국스チ로풀의 중국 진출은 지방 중소기업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충분하다. 열악한 여건만을 탓할 게 아니라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훌륭한 사례인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작지만 강한 기업(强小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국스チ로풀을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소기업’의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 無等鼓

연말이면 눈에 띄는 익숙한 풍경이 있다. 양복깃에 빨간 간판 ‘사랑의 열매’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무는 것과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열매가 탄생한 것은 1970년대 초, 수재의 연금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때 상징으로 사용해온 것이 이제는 이웃사랑의 정표로 자리 잡았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 나라 애산하고 있는 산염매를 형상화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산림청은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하면서 사랑의 열매와 같은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랑의 열매는 붉은 색의 열매 세 개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열매는 나와 가족, 이웃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 열매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더불어 하는 사회를 이루자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은 빨간색의 한 손으로 빨간 무지개를 들고 있는 심벌을, 일본에서는 계획되는 불황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 이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내 앞 가림에 바빠 주변 둘 보기엔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따뜻한 피

가 흐르고 있다. 현금기부는 줄었더라도 쌀이며 김치, 연탄, 과일 등 생활필수품을 전해주는 손길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생필품을 전해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를 역시 보이는 않지만 가슴 속에 빨간 사랑의 열매를 품고 있는 셈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tbl\_r cells="4" ix="2" max